

弘報室 : (02)
6050-3601~5

이 자료는 7/16(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통신 등은 7/15(木) 11:00부터

※ 문의 : 산업정책팀 손세원 팀장(02-6050-3471), 김현수 과장(02-6050-3472, 010-3751-8953)

“지역관광으로 年 6만7천개 일자리 창출”

- 대한상의 조사 ... 지역별, 경북 1만7천560개, 강원 1만4천7백개, 전남 1만3천2백개
- 지자체 72% “지역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늘었다”
- 지역관광 활성화 요인 : 관광지 홍보강화(33%), 축제·행사 등(30%), 新관광지발굴(18%) 順
- 정책과제 : 민간투자인센티브 확대(32%), 내수활성화정책(21%), 우수관광자원 공동개발(21%) 順

○○축제, ○○테마파크, ○○대회 ……: 지난해 지역 관광사업으로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가 연간 6만7천여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관광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지자체별 관광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창출규모는 평균 709개로 집계됐고, 전체적으로는 약 67,340개에 달했다.

지역별 일자리 창출규모는 경북지역이 1만7천560개, 강원 1만4천7백개, 전남이 1만3천2백개로 고용규모가 1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남이 6천9백개, 전북이 5천7백개, 충북이 3천8백개, 충남이 3천4백개, 제주 2천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관광 활성화가 지역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지자체 10곳중 7곳(72.0%)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28.0%)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다.

〈표1〉 지역관광의 고용창출 성과

구분	일자리	효과 有	효과 無
전체	67,340	72.0	28.0
강원	14,700	72.2	27.8
충북	3,860	83.3	16.7
충남	3,400	82.4	17.6
경북	17,560	75.0	25.0
경남	6,900	68.2	31.8
전북	5,700	64.3	35.7
전남	13,220	60.9	39.1
제주	2,000	100.0	-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로는 ‘관광지 종사자’가 32.6%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념품점, 관광식당 등 ‘판매업 종사자’(15.8%), ‘휴양, 유원시설 종사자’(12.6%), ‘여행사 종사자’(4.2%), ‘컨벤션시설 종사자’(3.2%), ‘관광운송업 종사자’(1.1%) 등의 순이었다.

관광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한 계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58.9%는 ‘지역관광객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관광분야 종사자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38.9%는 ‘새로운 관광지나 호텔, 축제 등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답했다.<기타 2.2%>

실제로 지자체들의 67.4%는 ‘예년보다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예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8.2%, ‘예년과 비슷했다’는 곳은 14.4%로 조사됐다.

- #1. 강원도 화천군은 산천어축제로 일 자리를 만든 경우. 우선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축제가 열리는 겨울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도 관광객이 많아져 군내 관광지에 대한 관리 인력도 늘려야 했다. 그리고 화천의 명물인 仙燈거리에 사용되는 韓紙산천어등을 제작하기 위해 농한기 유흥인력 500여명을 활용하고 있다.
- #2. 전남 화순은 다양한 문화스포츠행사를 유치해 성과를 거둔 사례. 화순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하이 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지난해 9월 개관하면서 전남배드민턴대회, 전국대학배구대회, 화순코리아 챌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등 국내외 스포츠행사를 대략 한달에 2-3건씩 개최했다. 이를 통해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는 물론 선수 및 가족 등 방문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지, 음식점 관련 고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는 ‘관광지 홍보활동을 강화했기 때문’(32.9%)과 ‘축제, 행사 등 이벤트 개최를 확대했기 때문’(3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새로운 관광지 발굴’(18.4%), ‘테마파크, 리조트 등 관광시설 확충’(7.9%) 등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국내관광 수요증가 5.3%, 도로확충 등 교통편리 2.6%, 기타 2.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질문에는 53.0%의 지자체가 ‘있었다’고 답했다.<‘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 추진’(43.2%), ‘예년보다 관광분야 정책이 축소’(3.8%)> 특별대책의 내용으로는 39.3%의 지자체가 ‘지역관광 홍보강화’를 꼽았고 다음으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35.5%), ‘도로, 교통편 등 접근성 확충’(8.4%), ‘도시미관 정비’(7.5%), ‘공원,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 조성’(3.7%),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2.8%) 등의 순이었다.<기타 2.8%>

올해 관광객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도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64.4%는 ‘관광객과 관광분야 일자리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관광객 증가는 어려울 것’(9.1%), ‘포화상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22.7%), ‘관광객과 일자리 모두 감소할 것’(3.8%)이란 답변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자체가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관광분야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40.9%),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부족’(31.1%), ‘지역 내 관광자원 부족’(11.4%) 등이라고 답했다.<상품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 7.6%, 환경, 인허가 등 규제 6.8%, 기타 2.2%>,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로는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대’(31.8%), ‘내수활성화 정책’(21.2%), ‘우수관광자원 공동개발’(20.5%), ‘한국관광 대외홍보 강화’(10.6%), ‘지역관광지 규제 해소’(10.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산지원 및 교통인프라 확충 4.5%, 중국비자 등 출입국 간소화 0.8%>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조업이나 건설 등 지역경제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지역관광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4/12 ~ 5/19
- ☐ 대 상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32개 사군
- ☐ 조사방법 : 전화 또는 팩스